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정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당보 《로동신문》과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 준 담화 주체97(2008)년 9월 5일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력사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김일성**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돐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영원한 국가주석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였으며 세기적으로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날로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는 조국산천과 드넓은 전야들, 온 나라의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들에도 철벽같이 다져

진 조국의 방선과 전연초소들, 수많은 공장, 기업소와 경제문화시설들, 기념비적창조물들에도 우리 수령님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령도의 자욱이 빛나게 새겨져있으며 우리 인민들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누려오는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고 행복한 생활의 갈피갈피에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과 하늘같은 은덕이 뜨겁게 깃들어있습니다.

공화국창건 60 돐을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과 군인들과 인민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숭엄한 마음으로 깊이 되새겨보며 어버이수령님께 최대의 감사와 최상의 영광을 드리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로 됩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계승발전시켜 선군시대 부

강조국건설의 진군길,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와 선군장정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거연히 솟아올라 그 권위와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군인들과 인민들은 당의 부름따라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며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1

우리 공화국의 60 년 력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폭풍을 헤치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 위대한 투쟁과 승리의 력사,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건국의 기초축성과 국가건설의 초창기부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력사적 기간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전진하여왔습니다. 새 조국, 새 사회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만난시련을 뚫고나가는 준엄하고 간고한 투쟁이였지만 우리 조국은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이 길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불멸의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화국의 60년 력사가 찬연히 빛나는것이며 오늘 사회주의 우리 조국, 선군조선이 자주의 성새, 사회주의의 보루로 그 권위와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공화국창건의 기본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혁명투쟁이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침략자

들을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였으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군대와의 가장 치렬한 반일혁명전쟁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20성상의 피어린 투쟁으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으며 조국과 혁명의 만년재보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습니다.

해방된 조국땅에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되였습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국토가 량단되고 안팎의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은 새 조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각 방면으로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인민의 드높은 애국열의

와 모든 애국력량을 조직발동하여 제국주의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북반부에 항일혁명전통을 계승한 인민정권과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시여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의 정권기관들을 강화하고 인민적인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가장 준엄한 첫 시련이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격렬한 싸움이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저들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15개 추종국가들의 무력까지 동원하여 현대적군사장비와 온갖 전쟁수단들을 다 투입하면서 미쳐날뛰였으나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야말았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전선과 후방에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침략무력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고무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과 국가사회제도의 공고성,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지를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세계전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미제에게 참패를 안긴 전승업적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영웅의 나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였습니다.

주체의 조국, 우리 조선은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군사적대결에서뿐아니라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도 기적을 창조하고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 령으로부터 시작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몇해사이에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우리 식으로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가장 빛나게 완성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우리 인민은 남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리는 기세로 천리마대진군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류례없는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켰습니다.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를 위한 창조와 건설의 거창한 투쟁을 통하여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섰으며 세계가 칭송하는 천리마조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불리우게 되였습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위업을 이어나가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의 시대이며 우리 조국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입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일찍부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당, 국가, 군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갔습니다. 우리 당은 당과 국가, 군대를 위대한 수령님의 당, 수령님의 국가, 수령님의 군대로 건설하고 강화발전시키며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기 위하여 모든 힘을 집중하였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수행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이르러 정세는 급변하였으며 우리 조국과 혁명은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

치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을 기화로 하여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엄중한 위험에 처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가장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고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또다시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패의 정치군사적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우리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단독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과 싸워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한

것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제압분쇄하고 미제와의 총포성이 없는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련전련승하여온 우리의 선군혁명업적은 말그대로 기적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우리는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 선군혁명총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습니다.

선군으로 승리하며 위용떨치는 사회주의조선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승리의 기치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이 걸어온 60년 력사는 우리 인민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줍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끝까지 지키고 빛내이기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2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나라를 일떠세웁니다. 수령이 위대하고 당이 위대하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발전된 나라로,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수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은 곧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에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서게 되였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고 자주의 사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 구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이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지만 그 지위와 역할은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와 같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높

이에서 보장해주는 나라는 력사에 일찌기 없었습니다. 이민위천의 사상에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숭고한 애민정신이 담겨져있습니다.

이민위천은 우리 당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이며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이고 국가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적국가사회제도도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도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고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내세우는 우리의 정치는 참다운 사회주의정치이며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숭고한 인덕정치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의 로선과 정책은 어느것이나 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것이며 인민대중의 자각적인 열의와 투쟁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관

철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인민우에 군림하여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국호도 군대와 보안기관의 이름도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명칭과 여러가지 명예칭호도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하여 부르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 우리 제도, 우리 정치의 인민적인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는것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보람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참가하며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값높은 정치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여러가지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마음껏 배우고 건강을 증진하며 혁명적이고 랑만에 넘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과 국가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생활에 일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있으며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습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존엄높고 보람차고 행복한 참다운 인간생활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이고 어머니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들은 영광의 나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변함없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을 믿고 따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을 목숨바쳐 지키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왔습니다.

온 사회의 일심단결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수령님과 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빛나게 실현된 더없이 고귀한 국가건설업적이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입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인민들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충성으로 받드는 바로 이러한 혁명적동지애의 관계,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에 기초하여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형성발전되였으며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심단결은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로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강화되였으며 이 위대한 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과 사회적안정의 근본담보이고 사회주의조국의 불패의 위력의 무한대한 원천이며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부강조국건설의 강유력한 추동력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을 제일 두려워하며 그것을 허물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계속 군사적침략책동에 매달리는 한편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간판을 들고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반동들이 들고나오는 《인권옹호》요, 《민주주의》요 하는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지배주의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며 인민의 조국인 우리 공화국, 일심단결의 우리 사회에 대하여 그런 허망한

궤변으로 비방중상하려드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격분을 자아낼뿐 추호도 용납될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열렬한 사랑을 받는 위대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온갖 풍파를 헤치며 그 숭고한 영상과 위용을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곧 자주성이며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생명입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그 나라의 당과 정권,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

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성과 민족성, 자주로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강철같은 신념과 의지, 세련된 령도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의 원칙, 자주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을 받들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며 자주로선을 견지하는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로, 숭고한 애민, 애족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웠습니다.

우리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신념,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대외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주

체의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제국주의반동들과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압력도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기성리론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모든것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먹은대로 당당히 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일찌기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주체이고 자주이고 자력갱생이며 여기에 우리의 존엄이 있고 긍지와 영예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민족문제의 본질과 사회발전에서 민족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여 계급성과 민족성, 사회주의와 민족의 운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계급성을 견지하면서 민족성을 잘 살려나가게 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전진과 더불어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는 민족문제에 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사상과 리론에 따라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고있습니다. 사람은 계급의 성원인 동시에 민족의 성원인것만큼 계급성과 함께 민족성을 가지며 계급적요구와 함께 민족적요구를 가지고있습니다. 민족성과 민족적요구를 무시하고 억제하면 광범한 인민대중과 모든 애국력량을 묶어세울수 없고 참다운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우리 인민의 민족성에는 민족의 슬기와 재능, 억센 기상과 애국정신,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여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우리 민족의 우수하고 아름다운 민족적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잘 살려나가는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관철하여왔습니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는것과 함께

시대와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을 창조하며 그에 기초하여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사상,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나가고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위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위업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이고 민족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여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옳게 살려나감으로써 제국주의반동들의 그 어떤 간섭과 압력도 우리에게는 통할수 없었고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도 우리 내부에 침습할수 없었으며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민족자주의식과 자존심이 비상히 높아지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강화발전된 우리 공화국은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인 동시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온 민족의 참다운 조국으로 자랑떨치게 되였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대정치파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서있었으며 오늘도 래일도 자기 발전의 길,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해나갈것입니다.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은 주체의 조국,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페쇄》니 《고립》이니 하면서 비방중상하며 우리에게 《개혁》, 《개방》을 먹이려고 부질없이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때 한번 나라의 문을 닫아맨 일이 없으며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수십억인민들과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맺고있습니다. 개혁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우리는 벌써 수십년전에 낡은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였으며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계속 혁신하면서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가고있습니다. 실지에 있어서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면서 봉쇄하는것도 우리를 고립시키려드는것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며 그들이 떠벌이는 《개혁》, 《개방》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허물려는 침략와해책동입니다. 제국주의반동들의 이와 같은 책동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뿐 실패를 면할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력사는 선군혁명령도의 력사이며 우리 조국과 혁명은 선군의 기치밑에 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선군으로 조국을 해방하시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부강발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로선을 받들어 일찍부터 당사업과 함께 군대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우리 혁명무력을 정치사

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펼치는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입니다. 우리는 국가관리체계에서도 국방위원회의 권능을 높이고 국방위원회가 국방사업전반을 지도관리하는 체계를 세워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철저히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주체의 혁명원리와 전략전술, 주체의 령도방법과 령도예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집대성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혁명과 건설의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있습니다.

국력에서 제일국력은 군사력입니다. 우리의 반제반미투쟁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사상문화의 모든 전선에서 치렬하게 벌어지지만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전선은 반제군사전선입니다.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힘의 대결이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힘만이 통할수 있습니다. 자체의 힘, 강한 자위적군사력이 없이는 제국주의와 싸워이길수 없으며 당과 국가도 보위할수 없고 인민의 안전도 지킬수 없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당은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당과 수령의 군대로,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켰습니다.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최고사령관의 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이 확고히 서고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전군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혼연일체를 이루게 되였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우리 식의 전략전술을 소유하고 현대적 군사장비를 그쯘히 갖춘 무적필승의 무장력으로 자라났습니

다.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공업은 위력한 현대적무기와 군사장비, 군사수단들을 다 만들어내게 되였으며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이 확립되여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가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있습니다.

선군정치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제압분쇄하고 필승불패의 군사적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으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 선군조선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진지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경제문화전선에서 대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선군의 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사상도 투쟁기풍도 하나가 되여 천만군민의 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조국과 혁명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비할바없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당의 선군령도밑에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림으로써 조국강토를 일신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 진행되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섰으며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선군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졌습니다.

선군정치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정책과 민족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채택공포됨으로써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북과 남, 해외에서 온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우리의 선군정치는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선군정치와 우리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영향력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대외관계가 급속히 확대발

전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수령님과 당의 령도밑에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였으며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를 경탄케 하는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조국, 주체와 선군으로 빛나는 사회주의조선은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어머니조국으로 열렬히 사랑하고 높이 받들며 수천만 우리 동포들이 온 민족의 긍지와 영예로, 조국통일의 보루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만사람의 마음을 끄는 위대한 사회주의나라로 위용을 떨치게 되였습니다.

3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의 먼길을 걸어왔으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국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

세워야 하며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함께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에 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입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승리의 신심높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조국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사회주의조국의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필수적요구입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데 맞게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사회주의조선

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의 혁명전사답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급교양, 혁명교양, 사회주의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교양사업을 깊이있고 실효성있게 벌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계급의식과 혁명의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회주의애국주의 정신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근본핵은 혁명의 수뇌부입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인민들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우리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치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일심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면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입니다. 민심을 틀어쥐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허물고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는 적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부시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리며 사상전의 도수를 높여 부르죠아사상과 생활풍조의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군의 기치높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이고 권위와 존엄이며 그 운명입니다.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여야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혁명의 주력군이며 조국보위의 핵심력량

입니다. 우리의 선군정치에서는 군사가 선차이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군대안에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체계, 최고사령관의 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최고사령관과 운명을 같이하며 최고사령관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 당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이 당과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의 정치사상적풍모를 철저히 갖추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관병일치의 미풍을 더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밑에 선군의 길에서 군대와 인민이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며 군민대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의 훈련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군인들을 우리 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을 소유하고 실전에서 능숙하게 활용해나가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며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현대화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장병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 모든 사람들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전당, 전국, 전민이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국방건설을 강화하여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를 경제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현시기 경제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입니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경제강국으로 일떠세워야 선군조선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 돐이 되는 2012 년에 강성대

국의 대문을 열데 대한 웅대한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야 합니다.

경제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앞세우는것은 국방공업과 경공업, 농업을 다같이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관건적고리입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을 추켜세워 경제강국건설의 넓은 진격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첨단과

학기술분야를 개척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제관리에서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집단주의적관리방법을 옳게 구현하여야 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모든 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사업과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키워내고 인민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주체의 문학예술,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군혁명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움으로써 수령님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절박한 과업입니다. 유구한 세월 단일한 조선민족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60여년이 되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과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륭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 선언입니다.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입니다.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렬을 가르는 시금석

입니다.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합니다. 북남공동선언들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적단합의 리념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격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외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이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모든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전쟁정책과 지배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수호하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국가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공화국정권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리론, 우리 당의 선군시대 국가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화국정권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공화국정권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과 일군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풍과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령도적정치조직이며 당의 령도는 조국과 인민의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입니다. 우리는 전당에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당의 통일단결

을 더욱 굳게 다지며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의 조직력과 전투력,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조직들은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주며 적극 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며 공화국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 당의 선군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수령님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